

구라레의 신폴리우레탄 섬유와 신합섬혼용의 수영복 소재

일본의 구라레는 신폴리우레탄 섬유 스판텔과 폴리에스테르 신합섬을 혼용한 획기적인 수영복 소재를 개발하여 전개하고 있다.

종래 수영복 소재는 나일론과 폴리우레탄 섬유와의 혼용중심이었으나, 패션·스포츠 의류소재의 주축인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폴리우레탄 섬유를 혼용하여 나일론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채로운 질감과 형태안정성 등이 우수한 소재의 개발이 테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 섬유는 내열성이 약해 폴리에스테르 염색의 고온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특수 타입의 폴리에스테르만을 혼용해 왔다.

동사는 내열성, 내염수성, 염색견뢰도 등이 우수한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폴리우레탄 섬유 “파스텔”를 개발하여 모든 타입의 폴리에스테르와의 혼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품의 특징은, ① 내염소열화 및 내염소탈색성이 크게 향상 되었다(풀장용 수영복에 최적). ② 선명색, 형광색의 내광성이 우수하다. ③ 습상태, 건상태 모두 신장회복성이 변화없다. ④ 형태안정성이 우수하다 (조금도 변화 없음). ⑤ 신합섬이 갖는 다채로운 질감을 표현 할 수 있다. ⑥ 엠보싱, 플리츠 (pleats), 전사프린트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또 동사는 스판텔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자외선 흡수율이 높은 세라믹을 원액배합한 UV 차단섬유 “에스모 F”를 사용하여 농색은 물론 백색, 담색도 충분한 UV 차단성능을 가진 수영복 소재를 완성하였다.